

전향서 쓰기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32년을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이제 선생의 나이 76세. “통일을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생의 마지막 남은 계획이다. 감옥에서처럼 만남의 집에서도 그는 4시에 기상하고, 청소, 조깅, 뉴스보기, 아침식사, 동료들 간병 등 만남의 집 집사 노릇을 자처하며 살고 있다. 그러는 선생은 건강해 보였지만, 70년대 전향테러를 당하던 중 한달 단식을 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폐결핵, 위장병을 앓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견딜 만한’ 때 북의 가족을 만나는 일과, 더 큰 선생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 김종호 선생

### 전쟁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유난히 추운 바람이 불던 지난해 겨울 어느 날이었다. 선생이 살고 있는 민들레 집을 찾아 대구 시내를 헤매다가 전화를 했더니, 찾기 힘든 곳이라며 직접 나오겠다고 했다. 약속장소에서 반시간 가량 기다리니 선생이 나왔다. 한 눈에 그분이 선생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걷

던 그 병색이 짙은 발걸음, 털이 덩수룩하게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듯 과자마를 입고 있었다. 선생의 뒤를 따라 골목을 몇 굽이나 돌았는지 모른다. 길을 잘못 들었다며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다.

선생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쪽 눈은 거의 감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 눈도 반 밖에 떠 있지 않았다. 징역살이 30년의 모진 세월이 선생을 그리 만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세월이었을까. 통일을 염원하는 분단세대의 수난을 선생은 온 몸으로 견뎌오신 것 같기만 했다.

김종호 선생은 16년 8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김천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고, 23살 때 만주 연길로 갔다. 거기서 홍농합자회사에서 7년을 근무하면서 결혼도 했다. 30살 때 해방을 맞아 연길 군정대학 설립준비 사무원으로 1년 간 일하다 이듬해 청진으로 내려왔다. 청진에서 김책제철에서 1년 간 근무했고 그 후에는 함북 조선소비조합 기획부장으로

일을 했다. 조선소비조합이란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모든 물자를 각 지역에 보급하는 일을 맡은 부서였다. 6·25가 난 이듬해 선생은 평양에 있는 조선소비조합 중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이 북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몸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은 여기서 6년 동안 일을 한 후, 57년 7월 남으로 내려왔다.(선생은 굳이 '남파'가 아니라 그냥 '내려왔다'고 했다.) 고향 근처 대구에서 연탄회사를 경영하다 61년도에 검거되었다. 대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다시 서울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대전, 목포, 대구 등지로 옮겨다니다가 91년 5월 25일, 만 30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30년, 혹은 40년의 세월. 그것도 징역을 살면서 보냈던 그 세월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 인간이 태어나 제대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세월이 30, 40년의 세월을 넘지 못할 터인데, 이분들은 가장 고귀한 삶의 절정기를 옥에서 보낸 셈이 아닌가.

“대부분 병들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고문과 공작으로 견디지 못한 이들은 죽어갔으며, 그나마 살아있는 우리들은 체념하면서 견뎌왔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물을 부어 얼게 한 다음 옷을 벗겨 얼음 위에서 밤을 지새게 하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목을 매어 자살한 이도 있었습니다. 구타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단식투쟁을 하면 돌아오는 것은 집단 구타였습니다.”

민들레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김창원 선생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라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선생은 인품이 온화한 분이다. 같이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선생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적은 음식으로 뒤돌아서면 배고프던 그 시절에도 속이 편찮다며 자기 밥을 덜어 주던 분이었다고 한다. 이런 성품을 지닌 선생이 그 혹독한 전향공작을 어떻게 견디어 냈을까? 고문과 배고픔과 0.75평 독방의 고독을 어떻게 견뎌 냈을까?

사실, 선생이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에 나온 것은 전향을 했거나 무슨 특사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선생은 출옥 당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결핵, 위장병,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선생을 정부는 '죽으려면 밖에 나가서 죽으라.'며 내보냈던 것이다.

지금도 선생과 같이 동거하는 김창원 선생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움직일 수 없다. 자리에 눕고 일어서는 것,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남의 부축이 없이는 지금도 어렵다. 가까스로 일어나면 걸을 수 있지만 먼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7월 무더운 날, 선생을 다시 만났을 때 몸은 지난 겨울보다 더 힘겨워 보였다. 며칠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시력을 회복하여 지금은 돋보기를 쓰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며 기뻐했다. 병약한 분이 무더위를 견디기 힘드실 터인데, 아나나를까 지난 겨울 이후 몸이 아주 쇠약해졌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소식에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한다. 아마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난다는 희망이 선생을 다시 소생시켰으리라.

눈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와야 한다며 선생이 일어섰다. 대구 양심수 후원회에서 나온 분이 선생을 부축했다. 천천히 문밖으로 나가면서 선생은 더듬거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전쟁 없는 나라에서 평화롭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 민족대단결



선생이 지금 대구 민들레 집에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동지 김종호 선생 때문이었다. 옥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 동안 병고에 시달려 온 김종호 선생을 보살피기 위해서였다.

“사탕 하나만 생겨도 그걸 옆방에서 옆방으로 돌려서 모든 동지들이 한 번씩 빨아먹곤 하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김종호 동지는 그 때 자기 밥을 덜어 옆 친구에게 줄 정도로 정이 많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은 그 때 맺은 끈끈한 정 때문이지요.”

양말 신기고, 목욕탕에서는 때도 밀어 드리고, 음식을 먹이며 병수발을 들고 있는 선생님의 얘기였다.

김창원 선생은 34년 서울 흑석동에서 태어났다. 4형제 중 장남으로, 일제시대에 중앙대 경상공중학교에 입학했고, 4학년 때 6·25를 맞았다. 그 해 선생은 영등포구 임시 민청 선전부 활동을 하던 중 나이를 18세로 속여 의용군에 입대했고, 7월에 인민군에 정식 입대하여 남진하는 부대를 따라 안동까지 내려갔다. 정전 무렵 동부전선 전투에 참가하였고, 57년 하사관으로 제대했다. 그 후 평양고등석탄공업전문학교 기계과를 졸업하였고, 중공업 위원회 석탄관리국에 배치, 전기 석탄공업성 상급 지도위원 부서과장으로 아오지 탄광, 광산 기계공장 등지에서 일을 하였다. 그 후 66년 당에 소환되어 69년 공작임무를 띠고 남으로 내려왔고,

그 해 6월 12일 구속되었다. 그리고 99년 2월 25일 3·1절 특사로 세상에 나왔다. 꼭 30년의 세월을 옥에서 산 셈이다.

선생의 가족들은 남쪽에 있었다.(‘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 어머니는 전쟁 당시 세상을 뜨셨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었다. 30년 감옥생활 동안 전향공작으로 모든 이들이 고문을 겪었지만, 선생에게는 남쪽의 가족을 잃는 고초의 세월이었다. 78년 4월 5일 중앙정보부는 사상 전향공작 3단계로 가족을 통한 설득 방법을 동원했는데, 수소문 끝에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왔다. 그 때 비로소 아들이 간첩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 아버지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다른 형제들은 일절 연락을 끊고 말았다.

“어찌 사는지 저도 궁금하죠.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그들과 이제 와서 만남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짐만 되죠.”

선생은 북에 가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내 김복화 씨와 아들 성식과 성남, 딸 성희와 성숙이 그들이다. 선생이 남으로 내려올 때 막내는 갓 돌을 넘긴 한창 재롱을 피던 아이였다.

“가슴으로 안아 주던 막내의 모습이 꿈마다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텐데, 어찌하여 내 꿈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지...”

선생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무친 혈육의 그리움을 차마 말로 다 잊지 못했다. 왜 아니겠는가. 이데올로기의 증오의 역사는 남쪽의 가족을 잃게 만들었고, 분단의 반세기는 북쪽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의 아픔을 지어 놓았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피차 외면해야만 하는 나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작은 땅덩이를 마주한 채 반세기를 연락조차 없는 그리움과 애절한 한으로 삭여온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던 날 대구 민들레 집에는 기쁨의 환호성이 울

렸다. 병세가 악화되던 김종호 선생이 생기를 되찾았고, 선생도 꿈에 그리던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쁨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선생의 통일관은 뚜렷하다. 한 마디로 '민족대단결'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 없이 하나로 단결하여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 선생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언론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쪽의 언론의 역할이 큼니다. 이 시대에 국민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힘은 언론 밖에 더 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남녘의 언론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단결시켜서, 자주적인 남북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남북회담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을까? 며칠 전에는 대구 MBC에서 나와 시사기획으로 대구민들레를 취재해 방영하였다며 녹화테이프를 보여주었다. '분단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이었는데, 지방 방송이 장기수 노인들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 참 감격적인 일이 아닌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웃들이 말하더라는 리포터의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선생은 이제 열리기 시작한 통일의 꿈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겨레 대대로 오고가던 길/ 산이 높아 오가지 못하는가/...온겨레 모여서 통일의 길을 우리함께 손잡고 열어나가자/ 백두와 한라를 이어 놓으리...”

## 정순덕 선생

### 통일은 온 국민 하나된 마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순덕 선생은 33년 경남 산천군 삼장면에서 태어나 지리산 아랫마을로 옮겨와 그곳에서 자랐다. 94년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들의 지리산 입산으로 극심해진 국군의 빨치산 토벌작전에 의해 선생이 살고 있던 면이 소개되고 집도 불타자 선생의 가족은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뼈뺏었던 살림살이 때문에 정식교육을 받

지 못했지만 선생은 부지런히 야학에 다니며 한글을 깨쳤다.

선생은 50년 1월 18살 되던 해 혼례를 치른다. 그 해 6월 전쟁이 나자 선생의 남편은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인민 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곧 전세가 바뀌어 남편이 입산을 하자 남편의 출처를 묻는 국군의 고문에 낮에는 당시 인민 해방구역이었던 시천면 내대리로 밤에는 집으로 옮겨다니며 피난살이 아닌 피난살이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니던 길목마저 차단되자 선생은 남편과 같이 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51년 2월 그때부터 선생은 '진양군 유격대'에 편입되면서 빨치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국군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때라 산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보급투쟁이 힘들어지자 배고파도 먹을게 하나 있다. 산에서 나물 뜯어서 죽을 쑤 부대원들과 나눠먹고,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며 제대로 된

잠자리 하나 없어 이곳저곳에 동상이 걸리고 국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열병도 많이 앓았지요. 대열 이동 중 체력이 부족해 꾸벅꾸벅 졸다가 대열에서 이탈되어 낙오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번은 노영호 부대장을 중심으로 부대가 덕유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이었지요. 무주구천동 넘어 가는 백석면에 재가 있는데 늘 잠복하는 국군이 많은 위험지역이라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여야 했지요. 어찌나 피곤한지 잠깐 쉬어 간다는 게 낙오되어 북성면에서야 겨우 부대와 선을 댈 수가 있었어요. 부대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찌나 불안하던지….”

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후 산에 남아있던 빨치산들은 6개월 안에 열리게 되어있는 정치협상을 기다리며 소부대로 분산했다. 그러나 정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입산한지 13년만인 63년 11월에 체포되었다.

“우리한테 조직망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수집과 필요한 물자를 대주고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인데 조직망을 세우려 마을을 자주 오갔지요. 그러다 경찰이 심어놓은 세포에 의해 정보망으로 이용했던 집이 발각된 거예요. 그 집에서 정보를 대주던 사람을 붙잡고 정순덕이 잡아줄래 안줄래 하며 좋은 물건들로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 포위를 하고 움푹달짝 못하게 되었지요. 그때 집주인이 총을 뺏는 바람에 자살도 못하고 잡혔지요.”

선생은 체포과정에서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지혈도 받지 못한 채 자갈밭길을 끌려왔기에 출혈이 심했던 선생은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40일간을 지서에서 보내고 재판소로 넘어간 선생은 무기를 언도받고 4월 12일 대구 교도소에서 구금된다. 교도소에서 선생은 군대 특무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설명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8개월 간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 불편한 몸을 갖고 독방살이를 한다는 것은 선생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발도 열고, 엉덩이에는 진물이 고여 강정처럼 뽕뽕하게 굳었지요. 그리고 여자로서 겪게되는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한쪽 의족에 지탱하면서 광목을 비누없이 수시로 빨아 말렸는데 별이 안들어 잘 마르지도 않았지요. 또 고문도 말할 수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데로 때리고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았지요.”

선생은 모진 고문과 건강상의 문제로 65년 전향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만난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전향서) 작성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충실한 일원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인민을 위해 총을 들었던 내 속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결국 선생은 대구, 공주, 대전 교도소에서의 25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85년 8월 14일에 가석방되어 나오게 되었다.

석방 후의 13년 또한 그리 평탄치는 않았다. 92년 재봉공장에 취직해 불편한 몸으로 보안 감찰관의 감시 속에서 가뜩이나 혼자 벌어먹기 힘든 생활에 숨 쉰이며 살았던 일, 95년 만남의 집에 자리잡게 되기까지의 삶은 여태껏 걸어왔던 선생의 삶과 그리 다를 바 없었다. 현재 선생은 풍을 맞아 한방병원에서 일년 째 치료를 받고 있다.

선생에게는 현재 연락되고 있는 가족이 없다. 지리산 자락에서 52년 1월 건강하라는 말 한마디 붙여보지도 못한 채 남편을 옆 눈으로 훑쳐본 게 마지막이었다. 후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선생이 입산해 있을 때 선생을 찾는 모진 고문에 돌아가시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두어 번 찾아왔던 어머니와 여동생도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선생의 마지막 바람은 9월에 있을 송환과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길을 열어줄 통일이다.

“통일이요? 6·17선언을 남북 양측이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민이 통일에 대한 단합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통일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말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서로의 이념을 비난하기에 열을 올리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한가지 중요한 짐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실천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의 병실 오른쪽 옷걸이에는 하얀 모자, 하얀 옷이 한번도 비닐 포장 벗어 보지 못한 채 가지런히 걸려 있다. 넉지시 물으니 9월 송환 때 입으려고 준비한 옷이라며 자랑을 한다. 그리고는 풍을 맞아 잘 가누지 못하는 팔을 흔들며 빨치산 때 배웠다는 노래를 하며 병실 안의 흥을 돋우신다. 그리고 ‘평양 가자~ 낙성대 가자~’ 조그맣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의 깊은 곳에서 새나오는 아픈 비음의 소릴 들으며 우리 민족의 분단사의 상처를 떠올려본다. 마지막 빨치산인 선생은 9월을 고대하며 살고 있다. 장기수들의 송환이 더 이상 내 형제에게 총 뿌리를 대지 않아도 되는 평화통일의 한 걸음이 되길... 선생의 바람처럼 9월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푸른 웃음이 통일을 밝히는 한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 ■ 최선묵 · 최수일 선생

###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전 터미널에서 한 블록 정도 지나 있다는 형제의 집을 찾아 나선 것은 지난 11월 8일, 대전 지리를 잘 안다는 전도사님을 대동하고 나선 길이었지만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해가 진 어두운 저녁시간이기 때문인지 여러 번의 통화와 마중 나가셨다는 선생과의 엇갈린 발걸음 끝에 어렵게 반가운 두 선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최수일(61세, 사진 아래), 최선묵(72세), 형제의 집에 계신 두 분 선생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모습이었다. 티없이 맑은 동안의 최수일 선생, 흰칠한 키에 건장한 청년을 뵈는 것 같은 최선묵 선생, 두 분에 대한 이런 느낌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내 함께 했다.

35년, 38년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두 분 선생에 대한 느낌은 맑고 투명했다.

형제의 집은 비탈진 언덕길 초입에 위치한, 작지만 깨끗하고 아담한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설수록 곳곳에서 선생들의 바지런한 손길이 느껴진다. 대문 안 일구어 놓은 텃밭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무와 배

추, 깨끗하게 도배된 집안 구석구석, 물기하나 남아있지 않은 싱크대, 너무나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부엌 세간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아낙네의 손길보다도 더 깨끗하고 단정함이 마치 지난 세월 초지일관 살아온 두 선생의 삶을 엿보는 듯 했다.

“집안 일은 누가 하세요?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젊으신 최수일 선생님이 다 하시죠?” 두 분 선생님의 보금자리에 대한 감탄과 함께 던지시 여쭙 질문에 최선묵 선생님은 “식사라든가 주방 일은 최수일 선생이 하고 청소는 제가 합니다.”고 말한다. 두 선생은 새벽 4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새벽운동으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한다. 아침 7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두 분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최수일 선생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특별취로사업에 나가고 최선묵 선생은 당제원 개원 준비와 함께 요즘도 하루에 몇 명씩 침을 맞기 위해 형제의 집을 찾아오는 환우들을 돌본다. 감옥 안에서 익혔다는 침술은 남다른 동기와 한이 서린 의술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동안 소금 국에 보리밥 한 덩이가 식사의 전부였던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대부분의 장기수들을 고향에 시달리게 했다. 혈압으로 쓰러져 가는 동지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뽀족한 꼬챙이를 구해 몸 이곳저곳을 찔러보던 게 효과를 보면서 침술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침술 행위(?)는 감옥 안에서 구한 침술서적들을 보면서 좀더 전문성을 띠게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 내 환자들을 돌볼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다.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랑에서 기인된 선생의 침술 능력이기에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남은 인생의 시간동안 어려운 처지에서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침술을 쓰고 싶다는 선생의 소박한 꿈이 있기에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앉아 있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하루를 살아도 때때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느낌이 든다는 두 분 선생. 감옥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남은 여생동안 살리코자 하니 마음은 더욱 바쁘다. 출감한지 8개월, 바깥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화돼 있었다.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잡한 교통노선과 생소한 지역 이름 등이 적용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도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있어 괜찮다며 가까이에 이웃도 사귀었다며 흐뭇해한다. 두 분 선생이 이곳 형제의 집에 온 것은 지난 4월 19일 천주교의 어느 신부의 도움을 통해서였다. 2월 25일 석방 후 몇 달간은 교도소 교화위원인 치과의사의 소개로 대전외곽에 위치한 적오산 농장에서 있었다며 독립된 지금의 생활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최선묵 선생의 고향은 강화도 서쪽 끝 외포리에서 손에 잡힐 듯 뻗어 보이는 아름다운 섬 석모도, 가난한 조각농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고생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땅 한 평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선생에게 50년 6·25 발발과 함께 마을로 내려온 인민군에 의한 토지개혁과 그로 인해 주어진 1천5백 평의 땅 분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었고 그것이 선생으로 하여금 의용군에 자원입대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그 후 선생은 인민군에 정식 입대했고 퇴각하는 부대를 따라 당시 2살 된 딸과 부인을 고향에 남겨두고 북으로 올라갔다. 정전 후 북에서 57년까지 군 생활을 한 뒤 제대해 함흥 목재가공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화성악기 기술개발에 참여해 가야금 등 현악기 개조 사업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 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기술자였으며 던지시 자랑하는 선생이다.

선생이 남파된 것은 62년 8월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고향에서 조카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남파될 당시 북에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 당시 고향에서 선생을 만났던 큰형과 큰조카, 둘째형 조카 등도 불고지죄로 함

께 구속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때 선생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를 받아 37년 동안을 복역하다 출소했다.

최수일 선생은 평북 의주군 가산면 방산리 출생으로 북에서 과학기술 학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65년 3월 정치공작원을 태운 함선의 승무원으로 내려오다 체포되었다. 당시 선생은 무기징역선고를 받았고 당시의 선장, 부선장은 사형 집행되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교도소에서의 35년 생활이 전부인 셈이다. 선생이 남파될 당시 아내의 나이는 24살,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나긴 이별을 맞은 것이다.

남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떠났던 최선묵 선생이 가족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은 체포된 후 감옥 안에서였다.

“64년일 겁니다. 큰조카가 단발머리 여자 애를 데리고 면회 왔죠. 딸이란 걸 알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얼굴을 못 봤어요. 제 처는 제가 전쟁통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개가했다더군요.”

2살 때 헤어진 딸아이를 10년이 지나서야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했다. 70년경 딸에게서 편지가 왔지만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는 선생에게 교도소 측은 “딸이 암으로 죽었다.”며 편지왕래를 중단시켰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분위기가 나아지자 선생은 수소문 끝에 딸 정인(51)의 생존을 확인했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그간 딸이 겪은 고초로 인해 선생의 가슴은 미어졌다. 결혼 후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딸 정인은 내쫓기다시피 이혼당하고서 기독교에 귀의 작은 교회전도사로 힘들게 살아온 터였다. 시대가 바뀌어 비록 출소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지만 ‘간첩’의 낙인은 그로 하여금 얼마 전 있었던 손녀딸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게 했다.

“딸애가 미안하다며 결혼식장에는 오지 말아달라더군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행여 딸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까 염려스러워 정인은 아버지를 끝내 자기 딸의 결혼식장에 모시지 못했다.

“선생님, 감옥 안에 계실 때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왜 전향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안전보장문제 때문이었나요?”

평소 무엇이 그토록 오랜 세월 그들로 하여 고통가운데서도 전향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나는 어리석게만 들릴지 모를 질문을 두분 선생님께 드렸다.

“아니,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최선묵 선생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곁에 있던 최수일 선생이 이런 질문을 되물었다.

“고난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고 한다고 하면 버릴 수 있겠어요? 없지요. 이걸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 확고한 신념을 현실의 안일함과 바꿀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고 있는바 신념에 대한 확증은 현실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강하여 진 것일까. ‘전향’에 대한 강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극심했었음을 선생은 이야기했다.

“72년일 겁니다, 정부가 물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전향작업을 폈지요. 맞아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도룩했어요. 우리도 죽는다는 생각에 이 한 목숨 통일을 위해 바친다는 각오로 버텼지요.”

3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 갔었다는 최수일 선생은 당시 800여 명의 수감자가 100여 명으로 나중에는 17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전향’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과 매질은 가혹했다고 한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자유’를 향한 피나는 투쟁의 역사였음을 들은 적이 있다. 분단의 시대 속에서 사상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반공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사는 한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인본주의도 민주주의도 뿌리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방의 감옥생활 35년, 그 힘든 세월 속에서 청춘을 감옥에 묻고 여기에 섰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양심을 지켰으니 말이지요. 앞으로 어떤 역경이 앞을 막아도 힘차게 살겠으니 지켜봐 주세요.”

해맑은 미소로 말하는 최수일 선생의 마지막 말은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상의 온전한 자유가 이룩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 비록 통일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고통의 분담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조국이 실현되어야 함을 새삼 인식케 되었다. 1년에 걸쳐서 망가진 정신적인 질병은 치료를 정성껏 한다고 해도 최소한 2~3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나마 나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조국이 분단된 지 50여 년 이 세월동안 황폐되어 ‘반공’과 ‘이기주의’로 뒤틀릴 데로 뒤틀린 민족의 정신세계가 보인다. 장기수 선생들은 우리의 그 분열된 정신이 낳은 희생제물이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얼마 후면 선생들이 북으로 간다고 한다. 이 분들을 보내고 나서 행여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게 될까 두렵다. 이번 북송조치가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 첫발자국이기를 기대해 본다.

## 이재룡 선생

###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



선생은 처음 보았을 때, 40대 중반으로 보았다. 그레 조작간첩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분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선생은 57세의 첫 손자 하나쯤은 볼 할아버지 나이이다. 그리고 아직 장가 한번 가지 못한 노총각이다. 그럼에도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맑고 순수한 얼굴을 간직하고 있다. 송환 비전향 장기수 중 가장 나이가 적고 또 총각이니 북한으로 가면 가장 인기가 좋겠다고 했더니 웃음으로 대답한다. 뼈 속까지 아리게 하는 혹독한 고문과 0.75평 감옥살이에 도 그 그토록 맑고 깨끗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맑고 순수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함께 광주 통일의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세 분 선생은 지금 이재룡 선생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재룡 선생은 44년 10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선양면 농고리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해방, 그리고 분단과 전쟁이라는 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중심에서 어느 한 사람(가족) 피해자가 아닌 이가 있겠는가 마는 선생은 전쟁고아로, 남과 북에 이산가족을 둔 남다른 역경의 삶을 살았다. 48년 초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분단이 기정사실화 될 즈음, 큰형(이재현)은 인민군에 입대했다.(당시 양양은 3·8선 이북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나고, 큰형은 휴전선 넘어 북으로

갔다. 한편 어머니와 다섯 누이는 전쟁통에 죽고 아버지마저 종전 직후인 54년에 돌아가셨다. 전쟁은 8살의 어린 선생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더군다나 20살 터울의,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큰형의 부재는 남은 4남매에게 형벌 그 자체였다. 현재 작은 형님은 돌아가시고 누님만이 어느 양로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의 형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76세의 노인이 되었을 거라며, 살아만 계신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선생의 간절한 소망이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선생은 생계를 위해 콩치잡이 배를 탔다. 선생이 배에서 맡은 일은 취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깃배를 타던 지난 67년 2월 어느 날(그의 나이 23살 때다.) 경상북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콩치잡이 작업이 속초 가까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됐다. 그러나 속초쪽으로 가는 줄만 알았던 배는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영해로 들어간 것이다. 이윽고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고 선생을 비롯한 9명의 선원들은 배와 함께 장전항으로 끌려갔다. 당시 남쪽에서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강제 납북도 월북도 아닌 단순한 사고였다.

지금은 금강산 유람선만 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장전항 온정리, 이곳은 그를 포함한 9명의 한국선원이 처음 며칠동안 조사 받으면서 체류했던 곳이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단순사고였음이 밝혀지고 4개월이 지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8명의 선원은 그 해 6월 남쪽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선생은 갑자기 얻은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북에 남기로 결정했다. 선생만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선생은 “처음 정전항에 붙잡혀 있을 때는 상당히 겁을 먹었다. 그러나 온정리에서의 조사과정과 평양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에 직접 보고 겪은 북한 사회와 사람들의 인간적인 태도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실례로 정전항에서 조사 받을 때의 일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

삿날이 가까워 오자 선장은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예를 갖추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삿날 아침, 뜻밖의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북한의 적십자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일행을 불러 어느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가지런히 마련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품었으나 곧 그 의심을 건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예를 갖추 절을 한 것이다. 함께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동안 남쪽에서 듣고 배운 북한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즉 이웃은 물론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회,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죽도록 일만하며 전쟁연습만 하는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만 알았던 자신의 생각이 왜곡된 편견임을 알게 되었다. 반공과 냉전논리의 붉은 색안경을 끼고 보았기에 인간과 민족을 보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래서 선생은 북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 후 선생은 2년 간 공산대학에서 공부하며 인민군 복무까지 마쳤다.

그리고 당시 평남 숙청군 협동농장 세포위원장으로 있던 큰 형을 만났다. 그러나 큰 형과의 재회는 곧 남쪽에 있는 작은 형과 누이와의 기약없는 이별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선생은 조국통일만이 이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여러 차례 당국에 남파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요구에 남파 허락을 받고 70년 6월, 다른 한 명의 동료와 함께 2인조 공작조로 경상북도 해안으로 들어왔다.

선생의 임무는 ‘지하노동당’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선생은 ‘지하당’이라는 말이 남쪽 공안기관이 만든 용어라고 했다. ‘사상의 자유’,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절, 친사회주의 활동이나 말만으로도 간첩 취급을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은밀히 임무(당 조직)를 수행해

야 했다. 그래서 지하당이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선생은 노동당은 결코 지하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선생은 남파 후 대구에서 방직공장 취업을 준비하며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던 중 20일 만인 70년 6월 19일 하숙집 주인의 신고로 체포됐다. 하숙집 주인은 선생이 말도 없는데다가 이리저리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다니기에 죄짓고 도망치는 사람으로만 알고 신고한 것이다. 이후 재판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선생은 무기, 동료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지금도 죽음까지 같이 하기로 맹세했던 동료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자신은 살아 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한다. 동료의 죽음 대신 얻은 목숨, 통일을 위해 남은 생을 사는 것이 먼저 간 동료의 빛을 갚는 길이라 한다.

선생은 체포되고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분실에 끌려가 3개월 간 조사를 받았다. 남한내의 연락선(조직), 임무, 귀환시의 접선 방법은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에게 고문은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동료와 당을 배반할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다. 당시 선생을 고문했던 수사관이 "북의 교육이 무섭다. 어떻게 3년 만에 사람을 저렇게 철저하게 빨갱이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라면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강제전향공작, 사상전향을 위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비열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선생 또한 모진 매를 맞았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는 한 때 전향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정보부는 선생을 다시 기소하고,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10년 추가형을 내렸다. 이렇게 비전향 장기수로 다시 강제전향공작에 맞서 싸워 오다 99년 2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29년 만에 석방되었다.

76년, 선생이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속초에 있는 큰 누님이 단 한번 면

회를 왔었다. 그리고 84년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교회사(전향공작을 위해 채용된 전담반원)로부터 작은형의 사망소식을 듣는다. 출소 후 이재룡 선생은 형수와 조카들이 살고 있는 속초를 찾았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았을 마음 고생과 상처를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조카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다 받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선생은 33년 만에 형수와 조카들을 만났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큰조카는 삼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선생은 조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해주었다.

"나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 통일이라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 일하다 감옥에도 가게 됐다. 그러니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 그렇게 선생은 30년 세월 동안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았다. 한 핏줄이기에 이해하지 못할 것,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아파했지 내 형제의 상처는 모른 채 하고 고소해 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가.

선생 또한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단순사고로 북으로 가게 되었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송환을 거부하고 혼자 북에 남기로 한 것도, 공작원으로 남쪽에 내려온 것도, 29년을 감옥에서 보낸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한쪽만이 아닌 나의 반쪽인 남과 북 모두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전향 온정리와 남산 대공분실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비록 선생이 남파된 북의 공작원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형제로써 좀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면 혹 선생은 지금 남한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그 동안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살아왔다.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발전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민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5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와 반공을 위해 인간의 가치를 박탈해 왔고, 비인간적 시장경제 논리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 왔다.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곳이라도 온전하게 남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뿐이다. 어쩌면 선생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같이 있지만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안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라고 말할 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을 요구하는 것이 꼭 나 때문인 것 같아 죄스럽다.

## 이공순 선생

### 참다운 길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공순 선생은 34년 12월 3일, 충남 서산군 정미면 전의리의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50년 8월, 한국전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무렵 17세의 소년이었던 선생은 의용군에 지원한다. 그리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 인민군에 입대하여 북으로 갔다. 부친은 8세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마저 전쟁직후 돌아가신 듯

하나 정확한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냥 행방불명 된 것이라면 아직 살아 계시리라는 희망을 가질 법도 하건만 선생은 담담한 표정이다. 그리고 잠시 후 “개인적으로 불효자입니다. 분단이 가져 온 비극이지요.”라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선생은 57년, 인민군을 제대하고, 함흥철도국에서 당 일꾼으로 일하다가 64년 함흥공산대학을 졸업(1회)했다. 졸업 후 선생은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행동하는 통일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남파 공작원에 자원했다. 그리고 66년 3월 17일, 곧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처(김덕화, 64)와 1남 3녀(춘애, 춘여, 춘복, 호)의 자식을 두고 아주 먼 여행을 떠난다. 그 후 67년 12월 5일 정치공작원으로 남파되고 5일 만인 12월 10일 포섭대상자의 신고로 충남 당진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됐다. 그리고 32년의 옥살이 끝에 98년 2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했다.

선생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한 4남매의 아버지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일까?

“가족보다 통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어쩌면 선생에게 있어 ‘가족’이란 혈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은 보다 큰 가족,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가족처럼 대한다.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이요, 오라는 곳이면 마다 앓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많은 형제를 둔 까닭이리라.

선생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남한에서는 자신과 같은 남파공작원을 무조건 ‘간첩’이라고 부르는데, ‘통일공작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간첩은 냉전 반공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적절한 용어다.”고 했다.

“간첩활동은 적국과의 관계에서 요인암살, 납치, 기밀탈취, 주요시설 파괴 등이 주임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족인 남북간의 순수한 통일사업을 위해 자원하여 내려온 사람들이기에 공작원인 것이다.”

전향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하고 묻자 선생은 단호히 자신은 ‘공산주의자’라며 “나의 역사관, 세계관, 미래관, 조국관에 기초한 확실한 신념과 사상이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이었다.”고 말한다. 내친 김에 통일문제에 대해 물었다.

“통일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민족적 자긍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통일된 조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 국가여야 한다.”

선생은 평소 말이 없다. 대쪽같이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서인지 굳이 속마음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선생의 대답에는 머뭇거림도 없고 또한 논

리적이다. 전향을 거부한 입장을 정연하게 들려주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잡아다 친일하라고 협박, 고문했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전향제도다. 이는 일제가 남기고 간 찌꺼기이기에 해방과 함께 폐기처분 했어야 했다.”

두 번째 전향거부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하라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권리(금지)마저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름만 바꾼 ‘준법서약제’도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의 이유는 양심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간 동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전향은 먼저 간 동지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혼자 살자고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마지막은 선생 자신이 참다운 길이 되고자 함이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 할지라도 민족 내부의 힘과 저항이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후대의 통일세대에게 하나됨을 위한 참다운 길을 보여주고 적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향을 거부했다.”

32년의 옥살이 기간 중 선생이 받은 고문의 흔적은 그의 몸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콩보리밥에 시레기국, 단무지 두 개가 전부인 정량마저 전향공작을 위해서는 감식을 서슴지 않았다. 감옥에서는 배고픈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배가 고파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던 습관 때문에 지금도 밥을 빨리 먹게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선생은 지금도 위장병을 앓고 있다.

상급과 진급의 특혜, 그리고 무의식에 가까운 보복심리가 작용해 빛은 전향공작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죽음의 나락으로까지 몰아갔다. 물, 전기, 고춧가루, 구타, 감식, 잠 안 재우기 고문은 다반사다. 전향공작을 위해서

는 폭력범들을 앞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일삼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히고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여름에는 1평도 안 되는 방에 8명씩이나 들여보내 질식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고문과 폭력으로 안될 때는 사회참관 명목으로 산업시찰을 하게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고문뿐이다.

“심지어는 여자나 전향한 동료까지 동원하여 전향을 회유했고, 가족을 인질로 하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전향을 강요했다.”

선생이 육체적으로 입은 고문의 상처는 아물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비전향 장기수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엄청난 고통에서 대해 선생은 “재소자로서 판결 받은 형량대로 살 권리조차 없었다.”는 말로 전향공작의 폐해를 지적했다.

선생이 반평생을 보낸 남한의 교도소, 그 하얀 집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은 밤을 새워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선생의 반평생 삶의 자리인 지난 32년의 비전향 사상수로서의 수인생활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던 것이다. 선생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민족을 향해 끊임없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다.

선생은 출소 후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 허락 없이 잠시 훑쳐봤다.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과 그 속에서 느낀 생각들이 꼼꼼히 대학노트에 적혀있었다. 앞으로 선생은 지난 32년의 삶을 정리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이 민족과 역사에 맡겨야 하겠지요.”

살점이 배어 있고 핏방울이 서려 있을 그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 그 분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리경찬 선생

### 겪은 시련들이 삶과 정신에 체화되어



리경찬 선생은 시골농부 같은 순박한 생김새만큼이나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분이 그 모진 세월을 몸 하나로 살아오실 수 있었는지...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있을 듯하다. 선생은 35년 10월 1일(음력) 개성에서 30리 떨어진 장풍군 월고리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 시절 한국전쟁을 겪고 54년 인민군에 입대하여 민정경찰(안내원)로 복무했다. 이런 군 경력 덕분에 선생은 안내원으로서의 임무를 띠고 67년 7월 14일 다른 공작원과 함께 남파됐다. 그러나 한달 후인 8월 12일 동료의 공작대상자 동생의 신고로 체포된다. 이후 99년 2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기까지 34년을 옥살이했다.

선생에게는 4남 2녀의 형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형들과 누이를 잃었다. 큰형은 징용을 피해 산에 숨어살다가 소식이 끊겼고, 둘째 형 또한 산 속에 숨어 지내다 잡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후 유골로 돌아왔다. 당시 일본 순사는 형들을 찾아내기 위해 부모를 협박하고 모질게 괴롭혔다. 이처럼 부모가 큰 고통을 당하고 형제를 잃은 선생은 식민지 조국의 설움과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다.

46년 선생의 가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의 단행으로 3

정보(1만 평 이상)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게 된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이었다. 그리고 첫째 지은 농사에서 1년 반을 먹을 만큼의 양식을 추수했다. 선생은 당시의 토지분배가 대다수의 소작농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 “그때의 감동이 국민과 국가를 서로 신뢰하게 만들고, 지금의 북한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농부의 거친 손이 그의 삶을 대변해주듯이 일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그가 겪은 시련들은 온전히 그의 삶과 정신에 체화되어 오늘의 선생을 만들었다. 선생은 지금도 사회주의와 북한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비전향을 고집하고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선생은 65년 7월, 울진 해변가로 남하하였다. 목적지인 서울까지 올라갈 때 충청도 괴산군의 어느 파출소 앞을 지나는데 보초병이 졸고 있기에 “야 임마, 간첩 지나간다. 졸지 말고 잘 지켜.”라며 한 마디 해 댔단다. 배짱이 두둑하다. 한편으론 무슨 그런 간첩이 있나 싶었다. 이런 말을 하며 너털웃음 짓는 선생의 모습에서 악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고 잘 살아 보자고 남쪽에 내려왔다.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한 달만에 체포되었다. 유난히 건장한 체력을 가진 선생은 멧집이 좋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특히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어찌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등 전체가 까맣게 피멍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른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보여주며 협박용으로 전향공작에 이용하였다. 전향공작의 본보기로써 선생은 그렇게 피멍이 들도록 매맞아야 했다.

선생이 짐승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멧집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맞을수록

더 강해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에 저들도 서서히 전향공작을 포기했다. ‘비전향’을 통해 선생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마 체제와 정치적 이념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그것을 인간애와 민족애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의 비전향은 이 땅을 덮고 있던 분단과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통일의 길을 여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자



김동기 선생은 인간적인 사회주의자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다.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논리정연한 이론가며 동시에 실천가다. 여기에다 재치와 유머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선생에게서는 정치, 종교, 이념,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자의 자신감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은 32년 10월 19일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진 제재공장과 성진제강소의 노동자였기에 어린 시절은 함경북도 성진시(현재의 김책시)에서 자랐다. 선생이 고3 때 한국전쟁이 났다. 당시 17세의 소년인 선생은 군대에 지원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20세로 나이를 속여 인민군에 입대, 서울, 추풍령, 낙동강, 동부전선 전투에 참가했다. 인민군 제대 후에는 함흥 노동학원과 평양상과대학을 졸업(1회)하고 남파 전까지 상업성(상공부)에서 상급지도원(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66년 경남 진양군 출신 정씨와 정치공작원의 임무를 띠고 남파됐다가 5월 18일 정씨 고모부의 신고로 포위되어 총격전 끝에 허리 관통상을 입고 체포됐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형,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 대법원에서 무기형 확정판결을 받고 99년 2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기까지 34년 간 옥살이를 했다.

선생의 강직한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개는 34년 감옥살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70년대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칼날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통일의 싹을 마구 자르고 억압했던 시절, 그 역시 강제전향공작에 맞서 싸웠다. 그것도 당당히 싸웠다. 당시 전향전담반은 전향공작을 위해 조직폭력전과자들과 혼거하게 하여 공공연히 비전향 장기수들을 구타하게 했다. 그 때 선생은 명동깡패로 유명했던 김성기라는 사람에게 구타당했다. 그러나 선생은 짐승처럼 당하기보다 오히려 맞서 싸워서 끝내 폭력배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단식에 돌입, 교무과장으로부터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76년에는 손윤규 선생이 강제전향공작을 반대하며 단식을 하다 옥사하게 되자 대구교도소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 전체의 단식투쟁을 주도했다. 이는 비전향 장기수 최초의 집단적 항거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교도소 측으로부터 '강제전향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구타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이 있었으니 바로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는 특별 사동에서만 정기적으로 행하는 비상사태(?) 훈련이란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생사람 잡는 것으로 누워서 두 팔을 온전히 뻗을 수도 없는 좁은 독방, 높다랗게 달린 좁은 창문 하나 빼고는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식구통으로 수류탄을 집어넣는 훈련이다. 온 몸과 마음을 전율케 하는 저열하고 잔인한 살인 훈련이었다. 아니 엄연한 범죄행위로 제도의 폭력이요, 살인모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이러한 고통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견뎌내었다. 아직 살아 있으면 109세가 되었을 어머니, 36년 전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었다. 선생이 94년 어버이날 어머니를 그리며 쓴 한 편지글을 옮겨 적는다.

“지금도 '가는 길 조심해라.'던, 이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어머님



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들 가는 길에 발탈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매일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당장 뛰어가서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지만 두 동강 난 어머니 조국은 아직도 허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 괴로움이 어찌 저 혼자의 슬픔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슬픔인데, 이제는 이 민족의 소원을 들어줄 것도 같은데... 민족 성원 모두가 어머니의 자식 사랑만큼 조국을 사랑한다면 어머니 조국이 하나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 류락진 선생

### 30여 년을 감옥에 묻은 남녘 출신 양심수



일흔 셋의 비전향 장기수 류락진 선생. 선생의 짧지 않은 이력은 여느 비전향 장기수와는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북녘에 연고가 있는 것도, 남파 공작원 출신도 아닌 선생은 남쪽 땅에서 통일 운동을 하다가 서너 차례 옥살이를 하였고, 이러한 삶에 온 젊음을 바쳤다. 훌륭한 서예가인 선생은 1928년 생으로, 언제

나 봐어도 온화하고 자상한 인상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칠십여 평생은 그야말로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수난을 온 몸에 안고’ 산 고난의 세월이었다고 할 것이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류락진 선생은 일본 시미네 사범학교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주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하며 통일 운동에 참여했다. 또 조선 노동당 전북 남원군당 선전부 지구당 활동을 하였으며, 인민군이 후퇴할 때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5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을 복역해야 했고, 또 혁신정당 사건으로 4개월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선생은 이렇게 그 인생의 순탄치 않은 여정을 시작했다.

선생은 1966년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데, 이 무렵 월북해 북쪽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 경험은, 선생이 한 평생을 지침 없이 통일 운동에 몸 바쳐 일해 올 수 있도록 해 준 든든하고

소중한 받침돌이 되었다.

전남 보성의 예당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71년에는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구속돼 사형까지 선고받는 큰 일을 겪기도 했다. 이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어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복역하던 중 1990년 가석방됐지만, 허락된 신체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94년 이른 바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미 예순 일곱의 고령이던 류락진 선생은 이후 6년을 신경통, 위장병, 기관지 천식, 불면증 등 30년 넘는 옥고를 치르며 얻은 지병들과 힘겹게 싸우며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99년 8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동생 영선 씨를 잃은 '5·18 유가족'이기도 한 류락진 선생. 그 삶은 온통 분단된 조국의 뼈아픈 역사로 얼룩져 있다. 서예에 탁월한 재능을 지녀 국전에서도 수 차례 입선한 뛰어난 서예가인 선생은 그 재능을 활짝 펼쳐 내는 일에 몰두하지 못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온 삶을 바쳐 온 선생은 '국가보안법'이란 희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이 땅에서 오히려 터무니없는 죄목을 달고 수십 년간이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선생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 감옥에서 얻은 지병으로 늘 힘든 몸이지만, 선생을 찾는 곳이면 힘닿는 대로 달려가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한다.

오랜 재야 운동가의 생활로 사진 찍는 일에도, 글을 남기는 일에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선생과 이제 활짝 웃는 편안한 얼굴로 함께 사진도 찍고 싶고, 선생 삶의 연륜이 녹아 있는 글도 읽고 싶다. 그 날을 바로 선생이, 아직도 이렇게 몸소 앞당기고 있는 것이라...

## ■ 홍명기 선생

### 자기 정당성 확신했기에 낙천적으로 살았지요



“나는 (인터뷰) 안 해도 되는데... 별로 한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넣어요.” 그 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시는 홍명기 선생. 일흔 둘의 나이에, 반평생이 넘는 세월을 모진 고난 속에 살아오셨을 선생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당신은 별로 한 일이 없으시란다.

언제 만나도 깨끗하고 푸릇한 인상을 주는 선생은 이러한 겸손과 여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커다란 인내와 자기 단련 있었을까, 어떤 밑 힘을 지니고 계신 걸까...

선생은 1929년, 충남 부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슬하에 맏아들로 태어났다. 소학교를 다니고, 서산에 있는 농림학교에 들어갔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 마치지 못한 채 그만두어야 했다.

그리고는 광천에서 남의 집 농사일을 다녔는데, 그 곳에서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주로 책을 보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키워 가던 선생은 이 때 전평 광천지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러다 의용군 모집 공고가 나붙자 선생은 가장 먼저 자원해 나갔다. 당시 친일파들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며 장악했던 이승만 정권의 부패하고 반통일적인 정책이 선생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와 공화국(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정당성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던 까닭이다. 선생은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의용군에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 중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이 후퇴할 때, 함께하던 일행은 흩어졌지만 선생은 그대로 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53년 7월 금강산 부근에서 휴전을 맞았다.

이후 56년 11월 인민군으로 제대하고서, 선생은 원하는 대로 농촌지역인 순안으로 가, 그 곳 협동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거기는 자기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 데서도 존경받고…”

그 때 생활을 흐뭇하게 회상하는 선생은 두어 달 뒤인 57년 2월에 평남 도당 간부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뒤 순안 군당에 배치되어 일했다.

그리고 62년 초 정치공작원으로 남쪽에 내려왔다. 석 달 가까이 주로 고향집에 머물던 중, 공무원이었던 외사촌의 밀고로 부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서 29일간 조사를 받으며, 선생은 이후 몇 년 동안이나 가위눌림에 시달려야 했을 만큼 심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고, 다시 미군에 넘겨져 고문 조사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결국 64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 4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사형 언도, 7월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고, 이 때 어머니와 고모부도 연좌제에 걸려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선생의 기나긴 옥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60, 70년대 비전향수들에게 교도소 생활은 무척이나 혹독했다. 무엇보다 기껏해야 서너 입 거리나 될까말까 한 4등식 ‘가다밥’은 생명을 부지해 내기도 힘들 정도였기에 영양이 절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또 교도소 당국은 바깥 세상과 철저하게 격리된 비전향수들이 가족들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절절한 그리움을 이용해 전향을 시키려는 철저히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가족들 면회도 전향 여부에 따라, 또 전향을 위해서만 허락되었기에, 65년 5월 교도소장의 입회 하에 어머니를 면회했던 선생은 전향을 끝내 거부했다 하여 83년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

안 어머니조차 뵈지 못하고 지내야 했다. 고문과 감시, 부실한 식사 등등으로 고혈압, 위장병, 치질 등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독방 생활을 하면서 편지 쓰는 일도 한 달에 한 번 200자 이내로만 허용되었다. 책도 철저히 제한해 거의 볼 수 없게 하던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엄격히 통제되었다.

“72년에 7·4 공동성명 있고 나서 북쪽에서 ‘정치범 풀라.’고 하니깐 ‘정치범이 없다.’고 할 작정이었는지, 전향시키려고 심하게 탄압을 시작했어요. 73년엔 아예 ‘좌익수 전담반’을 만들어 전향을 담당하게 했는데, 두드려 패고 독방에 가두고, 폭력으로 진행했지… 악포이고 모포고 책이고 집에서 보낸 영치금이고 소지품들을 모두 회수하기도 하고, 0.75평 되는 방 안에 11명씩 집어넣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살인범, 누범자 들을 한 조로 묶어 담배라든가 밀가루, 전기 코드 등을 주어 가며 ‘어떤 방법을 써서든 전향만 시키라.’고 했다. 간수 대신 살인범이 관리하는 교도소라니…

이렇듯 혹독한 옥중 생활은,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학생들이 많이 구속돼 들어오고 이들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그 엄청난 고통들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지켜 낼 수 있었을까. 선생은 망설임 없이 “그건 공산주의자의 초보적 심성”이라고 말한다. 옳은 것을 지키는 것,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켜 내는 것이 공산주의자인 선생으로서 아주 당연히 지니게 되는 성품이었던가 보다. 선생은 생활하고 배우는 가운데, 그 제도가 우월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익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당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난 참 낙천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선생…

선생은 99년 2월 25일, 37년을 복역하고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서울 누

이내서 함께 살고 있다. 오빠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 온 동생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선생은 이 누이와 다시 헤어져 북녘의 부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출소 후 취로사업을 해 온 선생에게 얼마 전에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게 돼 서운하다”하여 소주 한 잔을 나누기도 했다. 선생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겐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도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시국 얘기 같이 하고 해도, 오히려 ‘마음씨 좋다.’, ‘양반이다.’ 해요. 이 건 통일이 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 체제나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생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무엇보다 ‘통일’이 최대 과제”라고 힘 주어 말한다.

“외국의 힘 때문에 평화 통일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요즘같이 통일 열망이 높을 때 사상·이념 떠나, 과거 따지지 않고 같이 일해서 통일 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선차적 과업으로 두어야지요.”

## 이두균 선생

### 통일 조국민의 삶은 얼마나 가슴 벅잡니까



1927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941년 충주 교현소학교를 졸업하고, 충주 세무소에서 서기로 일하였다. 그리고 충주중학교 서무과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충주읍 민청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후 1950년 9월 인민군 후퇴와 함께 북으로 올라가 중앙당 유격지도처 동부연락소에서 일하였는데,

51년 중앙당의 소환을 받아 9월 하순 대남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된다.

남쪽으로 내려온 선생은 이듬해 4월 충주에서 체포되었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1961년 4·19 혁명이 있은 후 2년 4개월이 감형되어, 1969년 12월 22일 출소하게 된다.

선생은 출소 후 고물장사, 깔창 제조업 등 열심히 노동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한 5년 남짓이나 지냈을까, 선생은 다시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소에 수감되게 된다. 그렇게 모두 31년을 복역하고, 63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옥문을 나섰다.

이후 제기동 ‘민중탕제원’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며 약을 짓고 계신 이두균 선생... 선생은 긴 세월 굴곡 많은 길을 걸어 왔다는 사실이 얼른 짐작가지 않을 만큼, 일흔 중반에 접어든 지금도 건강해 보이는 풍채를 지니고 계시다.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 오시고, 어떻게 극심했던 전

행 강요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8·15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밤을 세워가면서 자위대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해서 우리가 선거해 정권을 임시로라도 만들었지.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전부터 미군정으로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해방의 은인이라 해서 환영할 준비하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짓이라곤 전혀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 또 다른 침략군으로, 점차 점령군 위세를 보였고, 38 이남에 미군정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분단을 고착화한 거지. 미군정이 시작돼 잘 훈련된 친일 반역자, 식민지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하면서, 민중이 기대하고 염원한 민주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일체에 있었던 법, 사람, 정책들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민족 자주’를 위한 내 삶은 시작되었던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전향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민족 반역적인 행위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비인간화의 길을 걷는 게 되는 거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주 통일’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

선생은 거침없이 말씀 하신다.

이승만 정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투쟁하느라 46년, 49년 투옥되었던 선생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실 수밖에 없다. 요즈음의 통일에 대한 열기를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신다.

“74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농부들이 일하는 어느 밭 가장자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밭두렁에 놓여 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내에서 술을 맘껏 먹었어요. 야! 이제 남북이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제야 민족이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해 남북이 뭔가 교감이 되었구나. 그런데 또 그만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말았고, 또 92년 남북 합의서 얼마나 잘되었습니까? 이것도 그 전과는 좀 달라지

겠구나 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남북 정상회담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되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은 통일이 된다면 잃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통일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거부보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성인들이 올바른 지적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도 기득권 세력이다 보니 이런 건전한 비판과 지적을 기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만큼 이 민족이 강화되는 것인데, 국민이 강화된다는 것은 개인이 강화된다는 것인데, 분단된 조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통일된 조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은 얼마나 가슴 벅찬 것입니까?”

흔히 비전향 장기수라고 부르는 이분들을 우리는 통일 일꾼이라고 부른다. 이 통일할아버지들은 그저 여느 노인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통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젊은이들보다도 더 뜨겁지 않나 싶다.

## 어릴 때 노동하며 모순에 눈떴지요



선생을 찾은 날은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였다. 제기동 민중당제원에 이두균 선생과 같이 앉아 계시던 선생은 정경계도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먼저 건네셨다.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부터 당돌하게 묻는 나에게 노동자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품이 비전향 장기수라는 노동자의 이미지보다 아직도 당당한 이 땅의 노

동자라는 생각을 먼저 들게 했다.

“어릴 때부터 노동자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투쟁의 필연성, 그리고 차별, 모순들이 의식에 반영되어서 ‘아, 저이는 나쁜 놈이구나. 이런 때에는 싸워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지. 이런 것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투쟁 속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발양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상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

선생은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360번지를 본적으로 1929년 12월 25일, 어찌 보면 할 일 많은 한반도에서 태어난다. 군산 팔마소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산제지에 입사하여 14살 아직 어린 나이에 노동자의 삶을 시작한다. 당시 악덕지배인 배척 운동 같은 일을 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성을 하나씩 눈뜨게 된다.

그러던 중 온 민족이 바라던 해방을 맞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해방

이후, 공장은 일본인에게서 조선인들에게 돌아와야 했지만, 엉뚱하게도 그 곳엔 미국 MP가 보초를 서고 미국이 배치한 지배인이 들어왔다. 선생은 또 이들 아래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선생은, 일제도 하지 않았던 이중장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정과 착취를 경험하였고, 미국의 모순과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로써 선생은 철저한 노동계급으로 살게 된 것이다.

48년 이승만 정권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단독선거를 진행할 때, 선생은 ‘5·10 망국적 단선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 때 수배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때 선생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오히려 대담하게 국방경비대로 약 3개월간 은신하기도 했다. 선생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이렇듯 단선 반대 투쟁을 벌여 왔지만, 결국 이승만 정권의 단선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나서 선생이 은신한 국방경비대는 단선 정부 수립 행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선생은 상경하는 도중에 탈영을 한다. 그리고 이 단선에 대항하여, 1948년 제5차 북조선 인민회의는 새로운 최고 인민회의 입법기구 구성을 위한 ‘전 조선에 걸친’ 총선거를 진행했는데, 선생은 역시 이 선거 투쟁에 동참한다. 그리고 이 투쟁으로 인해 군정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이듬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

선생은 1950년 군산 민청 맹원이 되고, 그 해 10월 전북 장안산으로 입산을 했다. 그러나 입산을 하고 난 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자신을 지치지 않게 하는 굳건한 받침이 되었던 것은 철저한 계급성이었다.

“일차로 들어가서 빨치산 하는데, 참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올 때 후퇴하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얼지 않은 개천을 따라 갑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가슴까지도 물이 차는 그런 깊은 곳을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산 속의 매서운 겨울 날씨가 물에서 나오면 서걱서걱 온몸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보면 열이면 열이 모두 해 낼 수는 없었을 터라 간혹 투항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런 경우 계급성의 차이를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때일수록 바닥부터 시작한 우리 같은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승리를 해야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투쟁하게 됐습니다.”

전쟁 중 80~90명이 모인 도 내무부 간부학교를 가게 되었다. 전쟁 중이기에 보급의 어려움으로 후방의 인민들이 하다못해 고추장, 된장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전방으로 보내 주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간부학교의 식사는 그 당시 전사라는 형편에 비하면 너무나 좋게 나온 것이다. 고깃국에, 하루에 달걀 하나씩 먹을 정도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생 스스로 “지금 먹고살기도 어렵고 전쟁중인데 우리만 잘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교관은 “간부는 중요하다. 간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간부가 잘먹고 건강해서 여기서 교육하는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고 인민들을 위한 사업을 잘해 달라.”

선생은 입산을 해서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확고함을 지키려 하셨다. 생활 속에서도 투쟁의 현장에서나 간부들이 술선수범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선생은 52년 체포되었다. 그리고 64년 3월 출소했다가, 9월에 다시 반공법으로 구속이 되었고, 67년 4월 출소를 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결혼을 해 예쁜 딸도 하나 얻었다. 산에서 감옥에서 비합법 투쟁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평안도 잠시였다. 76년 사회안전법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다시 구속된 것이다.

14년 동안 내내 경찰이나 기관은 선생의 부인이 일하는 공장 직원들을

앞세워 ‘빨갱이’ 가족과 일할 수 없게 하도록 선동하여 생활의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 눈가에 이슬이 어렸다. ‘안삼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민족에게도 꽃이 되기를 바랐던 아름다운 아이는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결국 꽃이 시들 듯 그 만 7살 나이에 그 짧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회안전법으로 감옥에 있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미처 몰랐었다.

“비몽사몽간에 열 살 정도 먹은 딸내미가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난 거야. 머리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는데, 깜짝 놀라 깨어나니 딸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더군. ...”

이 땅의 반통일 세력이 갓 피어나는 꽃을 꺾었다. 사회안전법은 도대체 누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내 “사상, 이념,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민족 내부에서부터 통일하자.”고 하시는 선생은 이미 그 꽃을 꺾은 사람마저 함께 어깨 걸고 통일로 나가는 넉넉하고 당당한 모습 그 자체였다.

## 제 2장 비전향 장기수 명단 및 약력

-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등 참고 -

### 1. 생존해 있는 비전향 장기수

- 강동근** 1916. 11. 19. 경남 하동 출생  
 1945. 해방 전 중국에서 활동하다 귀국  
 1950. 6. 인민군으로 참전  
 빨치산 활동 당시 국군 토벌대의 총격으로 왼팔 절단  
 1951. 1. 빨치산으로 투쟁 중 체포,  
 무기 23년, 감호 14년으로 모두 37년 복역  
 1989. 10. 11. 가석방  
 2000. 현재 부산시 북구 화명동 정화양로원에 거주
- 강용주** 1962. 6. 18. 6남 4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남  
 1980. 광주동신고 재학 중 광주민중 항쟁에 참여  
 1985. 2. 전남대학교 의예과 제적  
 전남대 민주화투쟁위 결성, 각종 시위 주도  
 1985. 9. 9.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죄)으로 기소  
 무기징역형 선고  
 1996. 옥중서신집 『깊은 물에 큰 배 뜬다』 (도서출판 진원,  
 1996) 출간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14년 복역)

출소 후 전남대 의예과 복학

- 강종건** 1988. 6. 10. 출소(13년 복역)
- 고광인** 1935. 1. 5. 전북 고창 출생  
 1956. 7. 12. 체포  
 1977. 4. 19. 만기출소와 동시에 감호소 재수감  
 1989. 9. 6. 출소(34년 복역)  
 2000. 전북 고창에서 생활
- 고성화** 1916. 8. 20. 제주도에서 출생  
 1973. 3. 16. 세칭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무기형 선고  
 1993. 3. 6. 형 집행정지로 출소(20년 복역)
- 권낙기** 1947. 3. 18. 경북 봉화 출생  
 1989. 9. 6. 출소(18년 복역)  
 2000. 현재 '통일광장'에서 일함
- 권상출** 1916. 8. 5. 경북 봉화 출생  
 1958. 2. 18. 체포  
 1988. 11. 24. 출소(30년 복역)
- 기세문** 1934. 1. 20. 출생  
 1953. 광주 사범학교 졸업, 교직 생활  
 1956. '조국평화통일동지회' 조직 사건으로 구속  
 1958. 출소



- 1960.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에서 청년·통일 운동
- 1961.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대의원
- 1968. 통일혁명당 호남지구 재건 운동
- 1971. 구속, 15년형 선고
- 1986. 만기출소  
민자통 활동, 자연건강교실 단식원 운영  
『세계의 단식건강법』(세훈사)
- 1995. 고 윤기남 선생 장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구속
- 2000. 『자연의학 자연건강법』(에디터 출판사)

김국홍

김권식

김도한

- 김동기 1932. 10. 19.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출생
- 1966.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후 허리 관통상을 입고 체포
- 1967. 12. 10. 구속, 무기형 선고
-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3년 복역)
- 2000. 현재 전남 광주 '통일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김명수 1922. 5. 1. 함남 함흥시 사포구 당보리 출생
- 1939. 홍남 비료공장 노동
- 1911. 1. 홍남 용성기계공장 입사
- 1951. 6. 5. 도당학교 졸업(3개월)  
홍남시당 책임지도원 배치

- 1952. 6. 홍남 제약공장 운창과장
- 1952. 12. 부천으로 공장 이전
- 1954. 7. 홍남시당 위원장에게 발탁, 송환  
용성기계공장에서 근무
- 1957. 7. 28. 남쪽으로 오다가 체포, 무기징역
- 1993. 3. 6. 출소

- 김복성 1915. 충남 연기 출생
- 1988. 8. 출소(28년 복역)

- 김석형 1914. 4. 13. 평양시 보통강 구역 출생
- 1961. 5. 16. 서울에 음
- 1962. 2. 5. 사형선고, 무기판결
- 1991. 12. 24. 형 집행정지로 출소
- 2000.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김선명 1925. 2. 2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7남매 중 둘째로 출생
- 1945. 8. 15. 영등포 특별자위대 조직 활동
- 1951. 10. 15. 새벽 4시경 인민군 31사 경찰대원 소속으로 철원  
지구 경찰도중 UN군에게 체포됨
- 1952. 8. 15. 15년형 확정
- 1953. 4. 대구형무소로 이감
- 1953. 7. 25. 국방경비법 33조(간첩죄) 추가, 사형선고
- 1954. 2. 27. 무기로 감형
- 1995. 8. 15. 형 집행정지로 출소(45년 복역)
- 2000.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김영달 1934. 경북 영덕 출생  
3살 때 부모님 따라 중국 하얼빈에 가서 중학 중퇴  
1951. 17세, 중국 인민군 지원  
1951. 12. 인민군으로 편입  
1957. 9. 29. 공작원으로 활동  
1957. 10. 1. 체포, 고등군법에서 15년형 선고  
1973. 3. 13. 만기출소  
1973. 7. 23. 보안감호소 입소  
1989. 10. 출소, 현재 부안 농장에서 근무
- 김영만 1924. 9. 25. 전남 구례 출생  
1945. 전남 구례에서 치안대 활동과 민청사업을 함  
1945. 10. 여순 사건 때 체포(경기 사고로 위장)  
1949. 4. 불명예 제대, 집에서 농사와 노동  
1950. 6. 구례방위군 조직, 나중에 모두 의용군으로 돌아섬  
1950. 9. 군산 동원부 입대  
1950. 9. 28. 후퇴 때 지리산 입산  
1952. 1.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60. 4·19 때 15년형으로 감형  
1967. 출소, 농사  
1976. 9. 27.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소에 다시 투옥  
1989. 10. 5. 출소, 이후 노동(목공소 등)으로 생활  
2000. 3. 현재 서울 월계2동에 거주
- 김영승 1935. 8. 7. 전남 영광 출생  
1950. 중학교 재학중 한국전쟁 발발

9. 28. 후퇴시 입산, 빨치산 활동  
1954. 체포,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1960. 20년으로 감형  
1974. 반공법으로 2년형 선고  
1976. 청주보안감호소 수감  
1989. 9. 5. 출소, 현재 노동

- 김영태 1930. 7. 23. 평북 정주군 옥천면 장경리 출생  
1950. 고향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인민군 입대  
낙동강전투 때 후퇴 중 병을 앓아 부대에서 낙오  
지리산에 입산, 이현상부대에서 활동  
1952. 2. 탄환이 왼쪽 눈 관통·체포, 남원 포로수용소에 수감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 그 뒤 20년형으로 감형  
1971. 대전교도소 만기출소  
1975. 사회안전법으로 청주보안감호소 수감  
1989. 10. 사회안전법 폐지로 출감, 청주 양로원에 머무  
1994. 6. 이후 광주 '빛고을탕제원'에 거주
- 김용규 1923. 6. 22. 전남 보성 출생  
1953.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4·19 후 20년형으로 감형  
1974. 8. 10. 만기출소  
1976. 7. 보안감호소 수감  
1989. 9. 5. 출소  
2000. 현재 서울 상봉동에서 생활

김용수 1931. 9. 30. 경북 경주 출생

1967. 8. 20. 체포

1993. 6. 28. 출소(27년 복역)

2000. 현재 대전 월평동에서 혼자 생활

김우택 1920. 1. 8. 경북 안동 출생, 주소 : 황해도 봉산

한국전쟁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 경력

한국전쟁 때 입북

1951. 남파

1952. 11. 14. 체포, 인민군임에도 비정규군으로 분류되어 포로

교환에서 제외, 무기형 선고

1991. 2. 25. 출소(41년 복역)

2000. 현재 부산 반송2동에 거주

김은환 1930. 7. 12.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 출생

1949. 덕수상업학교 졸업

1950. 6. 조선노동당 경기도 광주군당 근무

1950. 9. 인민군 복무

1960. 김책공업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1960. 조선예술학교 촬영소 기술처 근무

1969. 정치공작원으로 활동 중 체포, 무기형 선고

1999.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김익진 1930. 7. 13.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

1948. 18세 때 입산, 이른바 구빨치산으로 활동

대남 연락부 소속 공작원 해상 수송 안내원 업무에 종사  
1969. 배 안내원으로 상륙, 전투과정 중에 배는 월북하고 총격

전으로 큰 부상을 입고 혼자서 체포됨

1969. 6. 10. 구속, 무기형 선고

1973~1976년경 고문과 구타에 의한 전향강요 거부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30년 복역)

2000. 현재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김인서 1925. 출생, 본적 : 평남 덕천군 덕화면 불음리

1940. 평남 맹산군 옥천소학교 졸업, 농사

1949. 2. 1. 중앙당학교 입학

1950. 10. 15. 장흥지구 사령부로 입산

1951. 12. 31. 군경합동 대공세 때 지리산에서 체포

1952. 4. 5. 고등군법회의에서 20년형 선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1969. 10.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 노동일

1971. 2. 반공법으로 재구속, 2년형 선고

1973. 3. 7. 출소 뒤 다시 영신상회에서 달걀 장사

1976. 1. 16. 반공법으로 재구속, 5년형 선고

1981. 2. 24. 만기출소와 동시에 청주 보안감호소에 수감

1989. 10. 12. 사회안전법 폐지로 출소

광주갱생보호소 생활-채석장일 등

1994. 이후 광주 '빛고을탕제원'에 거주, 서점에서 일함

1996. 7. 29.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마비 상태

김인수 1923. 5. 27. 강원도 원산에서 출생

1962. 군사분계선을 넘다가 곧바로 체포

1963. 3.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검찰보 송치  
무기형 선고

1964. 3. 30. 대법원에서 무기형 확정

1998. 3. 13.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0. 현재 봉천동에서 최하종 선생과 공동 생활

김종호 1913. 8. 2. 경북 김천 출생, 김천고보 졸업  
금융조합 이사로 재직 중 해방을 맞아 경리사업에 종사  
소비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1960. 남파

1961. 5. 25. 체포

1991. 5. 25. 출소

2000. 현재 대구 '민들레의 집'에서 공동 생활

김중중 1926. 4. 2.(-) 경북 안동 출생  
1948. 5. 대구사대 중퇴(5·10 단선 반대투쟁으로 퇴학, 지명수배)  
1948. 12. 체포

1949. 3. 기소유예 석방

1950. 6. 참전 월북

1952. 법률학교 졸업

평안남도 경찰소 검사(박헌영, 이승엽 공판에 참관)

1961. 7. 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8월에 체포, 15년형 선고

1977. 3. 11. 출소와 동시에 보안감호소 수감

1989. 10. 7.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29년 복역)

2000. 현재 봉천동에 혼자 거주

김창원 1934. 10. 27. 서울 흑석동 출생. 4형제 중 장남.

일제시대 중앙대 경상상공 중학교(현 중대부고) 입학

1950. 영등포구 임시 민청 활동 중 18세로 속여 의용군 입대

1950. 7. 20. 인민군 정식 입대.

1953. 정전 무렵 동부전선 전투 참가

1957. 하사관으로 제대

제대 후 평양고등석탄공업전문학교 기계과 졸업

중공업위원회 석탄관리국 배치

전기석탄공업성 상급지도원 부서과장

1969. 남파, 6월 12일 구속, 사형 선고

1998. 특사로 출소

2000. 현재 대구 '민들레의 집'에서 공동 생활

김태수 1927. 2. 20. 전북 이리 출생

1955. 10. 체포

1989. 9. 6. 출소(36년 복역)

김혜섭 1928. 5. 16.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43. 3. 상고 졸업

1943~46. 서점 근무

1945~48. 학원 수업

1948~50. 9. 전북 정읍군 이평초교 근무

1950. 10.~52. 2.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 중 체포

1970. 2. 1. 만기출소

1975. 7.~89. 8. 사회안전법으로 수감 생활하다 석방

2000. 현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에 혼자 거주

- 류락진 1928. 8. 26. 전북 남원 출생  
일본 시미네 사범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수학  
1950. 민주청년동맹 활동  
조선노동당 전북 남원군당 선전부 지구당 활동  
후퇴 시기 입산, 빨치산 활동  
1953. 국가보안법으로 5년 복역  
혁신정당 사건으로 4개월 수감  
집행유예 출소 후 건축기사로 현장 종사  
1966. 중·고교 교사 근무 중, 월북  
1971. 통일혁명당 재건 운동  
사형 선고, 무기로 감형  
1989. 출소  
1994. '구국전위' 사건으로 징역 8년 선고  
1999. 8. 15.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0.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거주
- 류운형 1924. 12. 26. 함남 이원 출생, 본적 : 대전시 목동  
1944. 춘천사범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원  
1946. 강원도 철원 양지인민학교 교원  
1948. 철원중학교 교원, 철원군당 선전사업  
1950. 전쟁시 전남도당 정치공작대로 파견, 선전사업  
1954. 8. 25. 체포, 무기형 선고  
1961. 20년으로 감형  
1974.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양계장, 포장마차 등에서 노동

1976. 6. 30. 성동경찰서에서 감호소로  
1989. 10. 12. 출소, 수원갱생보호소에서 이전(34년 복역)  
2000.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류태런

- 류한욱 1911. 5. 24. 평안북도 칠산반도 출생  
1926. 안동 신흥학원 수학, 덕명학원 4학년 전학 입학  
1927. 결혼, 덕명학원 졸업 후 삼무중학교 입학  
악질 일본인 교사 몰아내기 위한 동맹파업 참가  
만주로 도피  
1947. 검사 생활(평안북도 검찰소)  
1956. 남파, 체포. 사형언도, 2심에서 무기 확정  
1967. 전향공작으로 인한 고문과 구타로 오른쪽 마비  
1991. 2. 25. 출소(36년 복역)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  
2000. 현재 낙성대 '우리탕제원'에서 공동체 생활

- 리경찬 1935. 10. 15. 경기도 장풍군 월고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남  
1954. 고급중학 졸업 후 인민군 입대  
군사분계선에서 민정경찰로 복무  
1965. 3. 대남 공작 안내원(선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  
1965. 8. 12. 구속, 무기형 선고  
1994. 그림 공부 시작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4년 복역)  
2000. 현재 전남 광주 '통일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박기만

- 박문재 1923. 9. 14. 경기도 개성 출생
- 1950. 6. 한국전쟁에 인민군 정치장교로 참전
- 1953. 2. 4. 빨치산으로 투쟁 중 계룡산 일대에서 체포  
전쟁포로였음에도 징역
- 1965. 4·19 당시 감형으로 약 12년 복역, 출소 후 결혼
- 1977. 중학교 은사인 일본거주 재일동포와 서신왕래 한 것을  
빌미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형 선고
- 1993.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모두 28년 복역)
- 2000. 현재 부산시 괴정 거주

박봉현

- 1919. 전북 순창 출생
- 1958. 일본 대정대학 졸업, 중학교 교장 재직 중 남파
- 1960. 6. 고창에서 체포
- 1991. 2. 가석방으로 출소(32년 복역)
- 2000. 현재 전주에 거주

박순철

- 박완규 1929. 4. 1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출생
- 1947. 청주상고 졸업  
서울로 올라와 당숙이 경영하는 상점에서 근무
- 1950. 7. 의용군 지원
- 1957. 인민군 제대 후 군 도매소 재정 책임자
- 1963. 평양상업대학 졸업 후 국영기업소 재정책임자로 근무
- 1967. 남파, 2개월 후 체포, 무기형 선고

- 1999. 2. 특사로 출소(32년 복역)
- 2000. 현재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박원경

박용서

박정평

박종린

방재순

배동준

- 1924. 3. 27. 경북 봉화 출생
- 1957. 7. 체포, 15년형 선고
- 1972. 9. 21. 만기 석방
- 1976. 10. 16. 보안감호소 입소
- 1989. 7. 26. 출소(29년 복역)

서 승

- 1945. 일본 교토 출생
- 1968. 도쿄 교육대학 졸업, 한국 유학(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 1971. '재일교포학생학원침투' 사건으로 육군보안사령부 연행  
무기징역형
- 1990. 출소(19년 복역), 이후 캘리포니아대학 사회학과 객원연구원
- 1998.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 법학과 교수  
『서 승의 옥중 19년』(역사비평사) 펴냄

서옥렬

서준식 1948. 5. 25. 일본 교토 출생  
 1967.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  
 1968.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70. 형, 서승과 함께 방북  
 1971. 4. 20. 서승과 함께 육군보안사령부에 체포  
 1972. 2. 1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 선고  
 1978. 5. 27. 만기와 동시에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1980. 7. 9. 교도당국의 처우에 항의하며 18일 동안 단식 투쟁  
 1987. 3. 3. 사회안전법 철폐와 석방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단식 투쟁  
 1987. 3. 6. 고등법원에 '나의 주장' 제출  
 1988. 5. 25 출소(17년 복역), 사회안전법 폐지 운동 전개  
 1989~1991. 민가협 공동 의장  
 1991. 6.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구속  
 1991~1993. 강기훈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1993. 3.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993~1995.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1996~1997.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1997. 인권영화제 때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으로 구속  
 1997. KNCC 인권상 수상  
 1998. 씨네21 영화상 대상 수상  
 2000.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손성모 1930. 1. 15. 전북 부안에서 조각농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남  
 1950.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입대

마산전투 참전하여 부상, 동부전선 전투 참가  
 1955.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입학  
 졸업 후 함경본공공업대학 교원으로 역사학 강의  
 김일성 군사 정치대학 두 차례 수료  
 1980. 남파  
 1987. 10. 무기형 선고  
 1999. 12. 31. 특사로 출소  
 2000.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송계체

송상준 1927. 5. 18. 출생, 본적 경남  
 1942. 3. 일본 북구주 계천 초등학교 졸업  
 철도모지 차장국 하급수  
 1945. 귀국 후 농사  
 1950. 7. 입산  
 1954. 4. 1. 부산 구덕산에서 체포, 2심에서 무기  
 1960. 20년으로 감형  
 1976. 만기와 동시에 보안감호소 수감  
 1989. 9. 5. 출소  
 2000. 현재 부산에서 노동

신광수 1929. 6. 27. 일본 시즈오카에서 출생, 5남2녀 중 막내  
 1945. 10. 부산항으로 단신 귀국  
 포항중학교 입학  
 1948. 2. 7. 구국 투쟁 관련 수배

서울 상경, 보성중학교 편입  
 1950. 한국전쟁 발발 후 의용군 지원입대  
 종전 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과대학 유학(기계공학 전공)  
 귀국 후 조선과학원 연구원 및 당비서  
 1965. 이후 일본 파견  
 대외연락부 소속 국제정보원으로 20년간 활동  
 1985. 서울에서 안기부에 체포, 사형 선고  
 1988. 12. 21. 무기징역으로 감형  
 1999. 12. 31. 특사로 출소  
 2000.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신인수** 1918. 4. 1. 경북 청도 출생  
 1924. 청도보통학교 졸업(야구 육상선수)  
 1925. 단독 월북  
 청진기계공업전문학교 졸업  
 1946. 청진인민위원회 간부  
 김책시 인민위원장  
 1957. 평양 내각 사무국 참사 역임  
 1958. 남파 도중 밀고로 체포, 15년형 선고  
 1973. 대구에서 만기출소  
 1976. 건축회사 근무  
 1989. 10. 보안감호소 구금 후 출소  
 2000. 현재 대구 향락양로원에 거주

**신인영** 1929. 12. 6. 전북 부안 출생  
 1950. 서울상대에서 수학 중 한국전쟁 발발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감  
 김일성 대학 졸업  
 1967. 3. 9. 정치공작원으로 남하했다가 귀환 중 체포  
 1967. 7. 반공법으로 기소  
 1968. 2. 무기형 선고  
 1998. 3. 13. 특사로 출소  
 2000. 현재 봉천동 '우리당제원'에서 공동체 생활

**신현철** 1917. 6. 22. 서울 출생  
 1953. 10년 징역  
 1962. 출소  
 1975. 8. 9. 감호조치 구속  
 1988. 11. 25. 출소(24년 복역)

**안영기** 1929. 6. 19. 경북 선산 출생  
 1950. 4. 경남상업중학교 졸업  
 1950. 9. 조선인민군 복무  
 1953. 10. 조선인민군 제대  
 1958. 평양건설대학 건축공학부 졸업(김책공대)  
 1958. 평양 도시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옥류관 등을 건설함  
 1962. 정치공작원으로 활동 중 체포, 무기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안학섭** 1930. 4. 7. 강화도 출생  
 1950. 6. 개성중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 발발



고향에서 민청 활동  
 1950.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감, 강동정치학원 입학  
 1953. 빨치산으로 목적이인 울진 청옥산을 찾아가다 체포  
 무기형 선고 받음  
 1995. 8. 15. 형집행 정지로 출소(43년 복역)  
 2000. 5. 현재 서울 봉천동 '우리탕재원'에서 제약 담당

**안희숙** 1931. 1. 13. 전북 군산 출생  
 1948. 11. 군정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49. 2. 집행유예 2년  
 1950. 군산 민청 활동  
 1950. 10. 전북 장안산 입산  
 1952. 문장산에서 체포, 15년형 선고  
 1964. 3. 11. 출소  
 1964. 6. 10.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2년 6월형 선고  
 1967. 2. 10. 출소  
 1968. 대전, 서울에서 노동  
 1976. 6. 16. 사회안전법으로 구속  
 1989. 9. 6. 출소  
 1990. 이후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수위

**양원진**

**양정호** 1934. 4. 3. 경남 양산 출생  
 부산공업학교(현 부산공고) 졸업  
 1950. 9. 30. 2차 학도병으로 한국전쟁 참가(국군 통신병)  
 이후 인민군 포로가 됨

1950. 12. 인민군 편입, 통신중대 분대장 활동  
 1957. 제대 후 기술대학 졸업, 청진제강소 기술지도원 근무  
 1969. 4.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1969. 6.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0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양희철** 1934. 9. 25. 전북 장수에서 소작겸 자작농의 3남으로 출생  
 1956. 고려대 상대 입학  
 1957. 부산 헌병대 입대, 제대 후 단국대 편입  
 1960. 4. 19. 이후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  
 1961. 3. 북에서 내려온 큰형과 함께 월북  
 순안통일대학 과정 이수  
 1961. 5. 16. 남한에서 일어난 쿠데타 소식을 접함  
 1961. 7. 남으로 돌아옴  
 각 대학에 평화통일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  
 1962. 체포  
 1963. 4. 24. 구속, 당국은 '양희철간첩단 사건'(고려대 지하당 사  
 건) 발표,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6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봉천동 '우리탕재원'에서 진료 및 침술 담당

**오형식** 1932. 4. 15. 서울 출생  
 1950. 경북중 5학년 재학 중 조선의용군 입대  
 조선인민군 복무  
 평양시 지방경비성 기술연구소 근무  
 1963.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졸업

원산농대 화학강좌 상급교원(조교수)  
 1969.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10일만에 체포  
 1969. 6. 12. 구속,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0년 복역)  
 2000. 현재 송파구 방이동 동생집에 거주

우용각 1929. 11. 29. 평북 영변 출생  
 1942. 제2공업학교 기계과 3년 중퇴  
 해방 후 신의주공전 기계과 수료  
 경제연구소(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수료  
 경제연구소 근무  
 1958. 7. 9.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도중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42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유연철 1912. 경북 안동 출생  
 1950.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  
 1955. 10. 9. 체포  
 20년형, 감호 7년(27년 복역)  
 1983. 5. 출소  
 2000. 현재 부산시 부민동에 거주

윤수갑 1923. 4. 7. 경남 동래 출생  
 해방 직후 사회주의 운동  
 1967. 3. 월북해 12일간 체류하다 내려옴  
 1967. 9. 인혁당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돼 체포

1998. 3. 13. 출소(32년 복역)

윤용기 1926. 8. 2. 경기도 강화 출생  
 의용군 입대, 인민군을 따라 월북  
 1959. 7. 3. 남파 후 창리 야산에서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8. 3. 13. 형 집행정지로 출소(40년 복역)  
 2000. 현재 경기도 시흥에 혼자 거주

윤희보 1917. 10. 10. 경기 광주 출생  
 해방 후 출소, 전쟁 때 입북  
 1952. 11. 18. 남파, 체포  
 10년 복역 후 반공법으로 5년 추가 복역  
 1967. 만기출소  
 1979. 사회안전법으로 재수감  
 1989. 7. 20. 출소(모두 25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쌍문동 거주

이경구 1930. 3. 4. 충남 공주 출생  
 고등학교 때 민주학생동맹 활동  
 1950. 의용군 지원  
 1951. 평양에서 당 연락부 사업  
 1952. 8. 남파  
 1952. 11.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4·19 때 20년형으로 감형)  
 15년형 추가  
 1989. 6. 출소

1995. 이후 월간 <말> 영업부 근무

**이공순** 1934. 12. 3. 충남 서천의 빈농 가정에서 출생  
1950. 8. 의용군 지원, 인민군 후퇴시기에 인민군에 입대  
1957. 인민군 제대, 함흥 철도국에서 당 일꾼으로 일함  
1964. 함흥 공산대학 1기 졸업  
1967. 12.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5일 만에 총상 입고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2년 복역)  
2000. 현재 전남 광주 '통일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이두균** 1927. 4. 2. 충북 충주 출생  
1948. 4. 9. 충주중학 서무과 서기  
1950. 한국전쟁 때 충주읍 민청위원장  
1950. 9. 인민군 후퇴 때 북으로 올라감  
중앙당 육격지도처 동부연락소에서 일함  
1951. 9.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1952. 4. 충주에서 체포, 20년형 선고  
1961. 4. 19. 2년 4개월 감형  
1969. 12. 22. 출소, 고물장사·깎창제작업 종사  
1975. 7. 24. 보안감호소 입소  
1989. 8. 7. 출소(31년 복역)  
1991. 11. 이후 '민중탕제원'에서 생활

**이명직**

**이상필**

**이성근**

**이세균** 1921. 12. 18. 전북 장수 출생  
1940. 고창중학교 졸업  
1944. 11. 전매청 근무  
1944. 12. 징용으로 야하다 제철소 근무, 다음해 탈출  
1949. 청주시 당 조직부 소속, 월북  
1951. 3.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60. 15년형으로 감형  
1966. 7. 8. 만기출소  
1975. 사회안전법으로 재수감  
1989.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  
2000. 현재 서울 '명진한약방'에서 일하며, 번동에 혼자 거주

**이영성**

**이오봉**

**이재룡** 1944. 10. 2. 강원도 양양의 빈농가에서 3남으로 출생  
1950.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됨, 중학교 졸업 후 어부 일  
1967. 승선한 배가 풍랑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에 나포  
나포 선원 송환시 병으로 잔류, 그 뒤 북에 체류  
1967. 공산대학에서 공부  
1970. 6.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체포  
1970. 6. 19. 구속,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29년 복역)  
2000. 현재 전남 광주 '통일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이 종** 1911. 8. 9. 충북 영동 출생  
1930. 농촌계몽 운동  
1931. '만실산 사건'으로 동대문에서 10일간 예비구속  
1932~37. 영동 청년동맹 중심 농촌계몽 운동  
1935. '이학당 사건'으로 영동에서 40일간 구속  
1945~47. 조선공산당 영동군당 선전책  
남로당 영동군 당부책  
1947. 단독정부 반대 투쟁으로 1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 3년  
1949. 중앙당 간부 부월 선책  
서대문 형무소에서 1심 4년에 상고중 해방  
1950. 원유 한강 도하책  
1951~53. 평양수도사업소 배치  
금강학원 입학, 남하  
1959. 3. 간첩미수로 체포, 구속  
1975. 7. 보안감호소 입소  
1988. 8. 25. 출소(25년 복역)

**이종환** 1922. 1. 15. 경기도 부천 출생  
1945. 소학교 졸업, 배관 노동  
인민위원회 남로당 사업  
1950. 인민군 후퇴 때 북으로 올라감  
1951. 7. 남파, 체포  
1952. 8. 이적행위(빨치산)죄로 15년형 선고

1953. 2. 간첩죄로 다시 재판  
1954. 3. 무기징역형 선고  
1993. 3. 6. 출소(43년 복역)  
2000. 현재 봉천동에 혼자 거주

#### 이학근

**임방규** 1932. 6. 16. 전북 부안 출생  
1947. 민주학생동맹 가입  
1950. 한국전쟁 때 의용군 입대  
1950. 10. 인민군 후퇴 때 임실 성수산으로 입산  
외팔이부대 정치부 중대장  
1952. 3. 체포, 광주 포로수용소 수용  
1952. 9. 14. 사형 선고  
1954. 3. 14. 무기로 감형  
1960. 4. 19. 20년형으로 감형  
1972. 7. 14. 출소, 서울에서 페인트공으로 생활  
1977. 10. 1. 보안감호소  
1989. 9. 7. 출소(32년 복역)  
2000. 현재 '통일광장'에서 일함

**임병호** 1915. 9. 1. 충남 보령 출생  
1959. 9. 27. 체포, 무기징역형  
1991. 12. 24. 출소(32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생활

## 임주홍

- 장병락 1934. 7. 25. 강원도 원산 출생  
1950. 6. 23. 해군하사관학교 자원 입대  
전쟁 발발 후 보병으로 참전  
1962. 3. 정치공작원 안내선의 기관장으로 남파(해상 안내원)  
1962. 4. 4.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7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장 호 1920. 11. 29. 서울 출생  
1938. 서울 보성고교 중퇴  
1938. 4. 중국 동북 등 외국에서 자유노동자 생활  
1945. 강원도 도당부 철원·회양군 당부사업  
1946. 조선문화협회 강원도위원회 활동  
1948. 인민유격대  
1950. 6. 서울시 당위원회 소속 <해방일보> 논설부 기자  
<로동신문> 기자  
1958. 7. 정치공작원으로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1. 형 집행정지로 석방(32년 복역)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 전 진 1923. 7. 6. 전북 옥구 출생  
1946. 4. 옥구군 민청 가입  
1947. 3. 남로당 가입  
1948. 2. 7. 구국투쟁 때 구속, 벌금형

1949. 조국통일 호소문 지지 운동  
1950. 7. 면당책  
1950. 10. 15. 입산(임실), 빨치산 중대장  
1952. 1. 17. 백련산 동굴에서 체포  
1952. 9. 12. 20년형 선고  
1960. 4. 13. 2년 3개월 감형  
1970. 3. 3. 전주에서 석방. 갱생보호소 기거, 노동  
1971. 4. 13. 이북 찬양으로 5년형 선고  
1976. 5. 7. 만기와 동시에 감호 조치  
1989. 10. 12. 출소(36년 복역)  
2000. 현재 인천시 부천에서 생활

- 전창기 1918. 4. 10. 충남 천안 출생  
1933. 충남 성환광업주식회사 기계운전  
1945. 황해도 송도 제철소 운수과 선로원  
1945. 9. 평양시 내무서(치안서) 근무  
1949. 10. 평남 대동군당에서 근무  
1950. 평북 수풍군수공장 위원장  
1954.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1955. 8. 체포, 10년형  
1965. 10. 출소  
천안에서 양계업, 자유노동  
1977. 1. 보안감호 조치로 수감  
1989. 8. 1. 출소(23년 복역)  
2000. 전북 군산에서 생활

정수학 1988. 9. 출소(28년 복역)

정순덕 1933. 경남 산청 출생

1950. 1. 결혼

1951. 2. 진양군 유격대

1963. 11. 11. 체포, 대퇴부 총상으로 한쪽다리 절단  
무기징역형 선고

1985. 8. 가석방(23년 복역)

1995. 8. 이후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1999. 4. 뇌일혈로 쓰러져 투병 중(인천 나사렛한방병원)

정순택 1921. 5. 8. 충북 진천 출생

1944. 1. 경성경제전문학교 졸업

졸업 직후 학도병으로 징집

1945. 11. 경성경제전문학교 재입학

1946. 6. 서울대 상과대학 2학년 편입

1946. 7. 신한공사 입사

1947. 6. 미군정 상공부 관산물자 배급소 경리과장

1949. 5. 월북

1949. 9. 상업성 영업관리처 재정부장

1951. 12. 상업성 외국인접대관리처 부처장

1952. 6. 내각경제계산자격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5. 5. 내각기술자격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8. 7. 대남정치공작원으로 남파, 체포

1959. 8. 무기징역형 선고

1989. 12. 가석방으로 출소

1997. 『보안관찰자의 꿈』 (한겨레신문사) 펴냄

2000. 현재 충북 음성에서 생활

#### 조금덕

조상록 1946. 3. 7. 전남 출생

1973.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남 순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1975. 일본 명치대학원 국제정치학 전공

언어 연구소에서 강의

1977. 12. 방학 때 일시 귀국 중 중앙정보부에 연행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22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난곡에서 생활

#### 조용순

조창손 1929. 8. 29. 황해도 장연 출생

1946. 민청 활동

1950. 5. 조선 인민군 입대

1956. 10. 체대, 장기군 농기계 임경소 배치

1956. 12. 강령부포 수산사업소 보위과로 이동

1957. 12. 수산성 중앙간부양성소 기관반 졸업  
본선에서 운반선 기관장

1959. 2.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연락부 소환

1962. 3. 28. 해상 안내원으로 남파

경찰 해군 방첩대의 집중사격으로 기관 파손, 육지 상륙

1962. 4. 5. 체포  
 1962. 8. 무기징역형 선고  
 1991. 12. 24. 병 보석으로 출소(30년 복역)  
 2000. 현재 봉천동 '우리탕제원'에서 공동체 생활

**진태윤**

**최공식** 1926. 9. 27. 전남 영광 출생  
 1941. 법성보통학교 졸, 대전에서 회사 점원생활  
 1945. 3. 고향에서 농사  
 1950. 면 생산유대(자위대)에서 활동  
 1951. 3. 체포, 무기징역형  
 1960. 20년형으로 감형  
     보안감호 조치로 재수감  
 1989. 9. 6. 출소(33년 복역)  
 2000. 현재 고향에서 농사

**최선목** 1928. 7. 17. 경기도 강화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로 태어남  
 1950. 의용군 지원, 인민군에 입대하여 북으로 감  
 1953. '화선악기제작대'에 참가  
 1957. 함흥 악기제작소에서 가야금 등 현악기 개조사업에 종사  
 1962. 8. 남파 활동 중 체포  
 1962. 8. 12. 구속,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7년 복역)  
 2000. 현재 대전 '형제의 집'에서 공동 생활

**최수일** 1939. 5. 25. 평북 의주의 빈농가에서 출생  
 평북 청수 화학공업전문학교 졸업  
 인민군에 입대  
 대남공작원 수송 안내원으로 일함  
 1965. 남파공작원을 안내하던 배가 발각되면서 체포  
 1965. 3. 4. 구속, 무기징역형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4년 복역)  
 2000. 현재 대전 '형제의 집'에서 공동 생활

**최제필**

**최철교**

**최하중** 1927. 3. 21. 함북 김책 출생  
 국가계획위원회 무역계획국 수출계획부장으로 근무  
 1963. 3. 4. 숙부 최주중(당시 5·16주체세력, 국가 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육군소장)과 통일문제 협의 위해 서울에 옴  
 1962. 3. 5.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8. 3. 13. 형 집행정지로 출소(36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봉천동에서 공동 생활

**최한석**

**한백렬** 1920. 2. 16. 경기도 광주 출생  
 1946. 고대 입학  
 1950. 9. 23. 인민군 후퇴 때 월북, 평양출판관리국 기획부장

1954. 10. 20. 체포  
1957. 5. 10. 10년형 선고  
1959. 12. 20. 형 집행정지로 출소  
1961. 7. 5. 대전교도소에 재입소  
1968. 8. 16. 출소  
1977. 4. 18. 보안감호소에 재수감  
1989. 7. 25. 출소(25년 복역)

**한장호** 1923. 5. 1. 함북 나진 출생  
1948.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50. 서울 한성중학교 재직 중 북으로 올라감  
1956. 평남 순안중학교 근무  
1957. 대남공작원 활동 중 체포, 무기징역형 확정  
1995. 8. 15. 형 집행정지로 출소(39년 복역)  
2000. 현재 대전 '사랑의 집'에서 공동 생활

**한춘익** 1925. 6. 10. 함남 함흥 출생  
1955. 9. 25. 체포  
1989. 10. 12. 출소(29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불광동에서 생활

**함세환** 1932. 12. 12. 황해도 용진 출생  
1950. 6. 의용군 입대  
1953. 6. 2. 체포  
1973. 6. 25. 출소  
1975. 7. 23. 감호소에 재수감

1989. 8. 7. 출소(34년 복역)  
2000. 현재 대전 '사랑의 집'에서 공동 생활

**허영철** 1920. 9. 25. 전북 김제 출생  
1940. 일본에서 광산노동  
1943. 부안으로 귀가, 농사  
1947. 군당 조직부 책임지도원  
1948. 2·7 구국투쟁으로 구속, 3개월 만에 석방  
1950. 7. 21. 군당 조직부 사업선거 때 부안군 인민위원장  
1951. 3. 평양중앙당(동북)학교에서 공부  
1951. 7. 황해도 장풍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952. 8. 황해도 금강학원에서 학업  
1954. 8. 남파  
1955. 7. 체포, 무기징역형  
1991. 2. 25. 출소(38년 복역)

**홍경선** 1925. 5. 21. 충북 천안 출생  
한국전쟁 때 월북  
1967. 9. 17. 조치원에서 체포, 무기징역형  
1998. 3. 13. 형 집행정지로 출소(33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홍명기** 1929. 4. 5. 충남 부여 출생  
1944. 서산 농림학교  
1950. 전평 광천 지부 활동, 의용군 입대  
1956. 평안남도 순안군의 협동농장 군 당지도원